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일상생활서 가르침 하나라도 실천을

17면에서 계속

이다, 독성각이다 신중단이다 차려놓고는 거기에다 공양을 올리게 했던 겁니다. 거기에 커다랗게 쌀 한말쯤 들어가는 불기를 만들어 놓고 정성을 드리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몇 사람만 다녀가도 스님네들이 양식문제를 해결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좋겠지만 빛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 능력껏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부처님 자리에 함께 하도록' 진심으로 바라면서 하는 것이 옳지요. 정이 없으면 내가 먹는 밥 한그릇을 가지고도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극 정성으로 해 드리면 됩니다.

큰스님께 여쭙면 병 낫는 도리
문 한마음선원에서 발간한 <한마음 요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어떤 병자가 하소연을 하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시고 그후 그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 도리가 어떤 도리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시면 마음공부 차원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과 물 섞이면 그대로 물입니다
'나' 라는 생각놓고 한생각 돌리면
그 마음이 '한마음'입니다”**

없어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미국이나 중국으로 오고 가고 말이 통하고 그러는 세상이니 이제는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기본적인 데 있지 않아요 그 점을 잘 아시고 어머님께서도 잘 납득하실 수 있게 일깨워드리도록 하십시오.

예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여러 곳에 지원이 있지만 그때는 생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사람만이 아니라 미국사람들도 여러번 전화를 해왔는데 주로 몸 아픈 사람들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그 때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그냥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만나든지 말이지 않아요 '네 마음 속에 주인공, 진짜 보배가 있으니 거기서 해결하라'고 일러줄데 상황이 그렇게 전화해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하고 심부름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던 말입니다. 심부름이요.

그렇다고 그 심부름이라는게 무슨 내와 내가 풀이 되어서 하는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심부름입니다.

여복하면 옛날에 부처님이 어디 계시나? 불법이 뭐냐? 했더니 '똥친 막대기'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와같이 내가 내가 되고 내가 내가 되고... 내 이 모습은 놓아두고 모습없는 모습들이 무

엇으론 될 수 있어야 하지요. 마음도리엔 그런 멋진 모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누구나 다 천체무전기를 갖고 있고 천체망원경을 갖고 있고... 말하자면 오신룡을 다 굴릴 수 있습니다. 남의 속을 뻔히 볼 수도 있고 남이 지나온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진통! 이런다면 다섯가지 신통을 다 굴려서 자유인이라 이겁니다.

보는 것만이 도나? 또는 병 고치는데 도나? 속속들이 듣는게 도나? 한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다섯가지지를 다 굴려야



그림·최추현

도라는 말입니다.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런 걸 종합해서 주인공! 하는 것이고 삼천대천세계가 다 공했으니까, 찰나찰나 나뉘며 돌아가니까 빌 공자 주인공 할 수 밖에요.

기독교집안이라 게 못받아
문 저는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오랜동안 몰부림치다가

도가 어렵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체만물이 다 가설되어 있다고 하시니 절에 나가 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마음공부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전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법회에 참석해서 가르침을 듣고
예를 보든 것은 아다시피 꼭 그래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스승도 없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사람들 보면 대개는 자만에 빠지거나 공부하다가 조금 갖감이 더워지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량에 나와 하심하는 법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되새기는 게 좋습니다. 또 도량이 그나랑 도량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처될 자격이 있고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평등하다면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경우라면 스승을 따라서 배우는게 있습니다.

깨우친 스승은 누구하고도 한마음이 되어 상응할 수 있지만 깨우치지 못한 경우라면 아직은 제발로 견지 못하는 것 같으니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히 사정이 허락치 않는다면 어찌시겠습니까? 생활 그 자체도 참선이니 그

합니다.
보시란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나를 위해서 하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분명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주고 받았다는게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이없이 한 셈이지요. 우리가 일체를 돌 아나게 생각하고 네 자리 내 자리, 네 마음 내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보시라는 말조차도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를 해야 옳으나, 많으나 적으나 하고 따질 일이 아니지요. 한 생각 일어났으면 그냥 한 사이없이 하면 그만입니다.

절에 안나가도 공부됩니까
문 초심자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법회에 참석하

도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도란 모든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인 줄 알아 신통력까지도 내 근본마음 자리에 돌려 놓아 무심이 되는 경지입니다. 거기에 이미 내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문제조차 불질 않는데 무슨 주인공이든 분이 있고 그 분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본래 고정된 것은 없고 찰나찰나에 나투고 돌아갈 뿐이어서 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한 것도 빌 공자 주인공이요 그 또한 이름이라 했습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계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것까지 다시 놓고가야 합니다. 이 공부는 첫째도 내가 죽는 공부요, 둘째도 내가 죽는 공부요, 셋째도 내가 죽는 공부입니다.

**“진정한 도란 신통력까지도
근본자리에 돌려놓아
무심이 되는 경지입니다”**

기가 어렵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체만물이 다 가설되어 있다고 하시니 절에 나가 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마음공부를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전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법회에 참석해서 가르침을 듣고
예를 보든 것은 아다시피 꼭 그래야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스승도 없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사람들 보면 대개는 자만에 빠지거나 공부하다가 조금 갖감이 더워지면 '이만하면 됐지' 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량에 나와 하심하는 법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되새기는 게 좋습니다. 또 도량이 그나랑 도량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처될 자격이 있고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평등하다면 아직 깨우치지 못한 경우라면 스승을 따라서 배우는게 있습니다.

깨우친 스승은 누구하고도 한마음이 되어 상응할 수 있지만 깨우치지 못한 경우라면 아직은 제발로 견지 못하는 것 같으니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히 사정이 허락치 않는다면 어찌시겠습니까? 생활 그 자체도 참선이니 그

다. 부처님께서 '내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고 너 자신에 의지하라' 하신 것은 부처님이 하찮아서도 아니고 법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본래 높고 낮음이 없으니 높아진다고 높게 보지도 말며 낮아 된다고 낮게 보지도 말라. 오로지 너 자신 속에서 너의 근본성품을 발견하고 그 근본성품에 귀의하라 하신 것입니다. 흔히들 밖으로 찾다가 바깥대상에 의지하려 하니 안에서 찾고 안으로 귀의하라 하신 것이지만 본래는 안과 밖이 둘이 아닙니다. 무심이면 그대로 여여할 뿐입니다.

전생연인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문 최근 한 정신과 의사가 최면요법을 사용하면서 중에 환자들의 질병이 전생과 연관되어 있다는걸 알고 치료에 이용했다면서 책을 펴 냈습니다. 이분이 또 두번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환자가 전생에 자기와 4번이나 연인이었다면서 지금의 부인과 헤어지고 그 연인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처사가 하도 기막혀 스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인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자에 겪었던 일들이 지금 내 잠재의식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서 현재의식으로 연방 튀어나오곤 하는데 저 녹음테이프를 지우듯이 나오는데도 되놈으면 전자의 의식은 녹아지고 맙니다. 그렇게 놓고 갈줄 모른다면 그런 잠재의식은 마치 산더미같은 노비문서가 되어 나를 무겁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걸음을 걷는데 앞서의 발자국을 의식하면서 걷는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 가면서 항상 아버지노릇, 어머니노릇만 하는게 아니고 아들이 되었다가 딸이 되었다가 때로는 동생도 되고 형도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자기를 딱 고정시켜 놓고 그 역할만 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살아야 합니까? 본래 누구나 자유인인데 말입니다.

전생이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알려거든 현재의 너 자신을 보아라. 잠재의식인 부(父)와 현재의식인 자(子)가 상통하는 도리를 알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공부해서 부모님께 진 묵은 빚 갚길 내가 하심하면 그 향기가 상대마음 녹여

어서아문 의 새책 **대행 스님의 인생 문답 ①**
생활 속의 불법 수행
삶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얇은 또다른 병통입니다. '길을 찾는 이들과 '대행 스님'이 나누는 이 책의 물음과 답변들은, 삶의 진실에 대한 절절한 의문과 대행 스님의 大用心이 빛나는 깨달음의 화답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30여 항목의 질의 응답은 현대불교신문 창간호 (94. 10.15)부터 14호(97. 9. 24)까지 '길을 묻는 이에게'란 연재되었던 것을 주제별로 묶은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역음 400쪽 4000원
어서아문 02-737-0695
이시아문 02-737-0696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부터 그대로 따르 기만 하면 언젠가는 일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 식구가 기독교를 믿기에 계를 받지 못하고 사찰에 적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문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의 근본이 둘이 아닌줄을 굳게, 진실하게 믿으신다면 항상 예불을 올리는 것이 되고 항상 향을 피우고 탕뎀이하는 것이 됩니다. 계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몸통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마음이 그러한 것이니까 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참된 예경이란 나를 낮추고 불보살과 선지식을 높이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일체 한마음과 더불어 돌이 아닌 곳곳함과 의연함을 잃지 않는데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기독교를 믿어서 드러내 놓고 불자로 행세하기 어려우시다면 마음으로 지극하게 가족들이 타력신앙에 빠지지 않게 한 생각 돌리시고, 그것 또한 한 공부의 재료로 삼으면서, 일체에 감수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서 그게 바로 부처님께 경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구

문 무엇보다도 자기의 고정관념을 고집하지 말고 놓으세요. 고정관념이란 자기만의 좁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넓으면 세상을 다 알고도 남음이 있지만 좁으면 바늘 끝도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건 간에 늘 하심하고 늘 공경하는 마음이야말로 불법에 귀의하는 것이고 자유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늘 하심하고 마음이 넉넉하면 그 향기가 상대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설사 상대가 믿지 않거나 하심하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물랐던 시절의 나, 못났던 시절의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라니 해야 합니다. 저 풀벌레나 초목도 내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저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려거든, 그렇게 되고 싶으시다면 지극하게 마음과 마음이 상응하도록 놓고 관해 보세요.

물과 물이 섞이면 그대로 물입니다. '나' 라는 생각을 놓고 한 생각 돌려서 하심하고 돌아간다면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시금을 정해놓고 예를 쓰시는 중이었는데 진정한 보시란 아다시피 무주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라고 하는 보시는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까지도 주인공에 맡기고 지극한 마음으로 하셔야

속에서 공부를 하셔야 하겠지요. 경전을 열심히 읽겠다고 하시는데 경전은 길잡이입니다. 그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에 걸리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도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려하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려하는 폐단을 염려해서입니다.

경전을 보되 글자를 보지 마시고 백지를 보세요. 그래야 경전을 바르게 대하는게 됩니다.

“낮은 자기에 귀의하라” 뜻

문 31살의 남자입니다. 많은 고난을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우연히 '주인되시는 분의 존재와 그 분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깨달음과 저욕이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주인이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모자라고 낮은 자기 자신에 귀의하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겠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문 천리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 볼 수 있어

합친 김지양